

#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6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28:7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13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44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저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뵈옵고 섬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과 탐심의 찌꺼기가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오니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허물에 얼룩진 심령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믿음과 사랑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누가복음 10:25-37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나는 진정한 이웃입니까?”

봉 헌(offering) ..... 2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 369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 예배 후에 애찬이 있습니다.

## <기도제목>

-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추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는 기관들과 사람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 이진국권사님 어머니를 위해

<말씀묵상> 누가복음 10:25-37

2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1.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25-28절)
2.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습니까?(30-36절) 나였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따로 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4:21,24절 참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가장 힘든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며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바로 이런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